

■ EU, 선박 연료의 황 함량 제한

- EU는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황 함량 1% 이내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함
 -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선박 연료의 황 함량을 1%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
 - 이 제안이 실행될 경우 선박과 관련된 세계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IMO에서 새로운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
 - 선박 연료의 황 함량 제한은 EU 역내의 산성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시뮬레이션 결과, 황 함량을 1%로 제한할 경우 산성화 가스인 SO₂와 NO_x의 배출량을 가장 비용-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1990년 선박에 의한 산성화 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0% 정도이었으나 육상 배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2010년에는 그 비율이 30%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 - 선박 연료의 황 함량을 1%로 제한할 경우 유럽 역내에서 선박에 의해 배출되는 산성화 가스를 최고 40%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- IMO는 선박 연료의 황 함량을 최고 4.5%로 제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현재 선박 연료의 평균 황 함량은 3.5% 정도임
 - 이미 EU는 IMO 체제 내에서 발틱해와 북해를 최대 황 함량을 1.5%로 제한하는 저황유사용권역으로 지정하는 협상에 성공하였음
 -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이들 지역 국가들에 의해 비준이 이루어져야 함
- EU는 최근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문제로 다른 IMO 회원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관련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
 - EU는 이미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고⁵⁾, 선박 폐기물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였는데⁶⁾ 이번에 선박 연료의 황 함량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나섬
 -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, 큰 타격이 예상됨

이광원(kwlee@hri.co.kr, 02-3669-4310)

5) 2000년 10월 16일, 에코브리프 24호, 'IMO, 단일선체 유조선과 TBT 규제에 관한 논의'

6) 2000년 7월 19일, 에코브리프 19호, 'EU 선박폐기물 해양투기 방지책 마련'